

텔레비전드라마 <로열패밀리>에 나타난 지배 이데올로기 대응 양상 연구

조은정*

1. 서론
2. <로열패밀리>의 사회적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양상
 - 2-1. 신자유주의적 욕망을 실천하는 여성들
 - 2-2. 신자유주의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환대와 모멸감
3. <로열패밀리>를 통해 바라본 신자유주의적 인간
 - 3-1. '인간 증명'의 성공과 실패 양상
 - 3-2. 진정한 신자유주의적 인간의 실천과 의미
4. 결론

국문요약

텔레비전드라마 <로열패밀리>는 재벌과 복수라는 소재를 통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보편적 가치라고 믿어왔던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가진 모순에 저항하며, 현실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로열패밀리>는 18년 동안 억압당해왔던 며느리가 재벌 총수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벌이는 복수 이야기가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기존 가족 드라마와는 달리 <로열패밀리>는 남성보다 여성(능력 있는 딸이나 며느리들)을 전면에 내세워 경쟁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욕망의 주체로 형상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화 하고 있다. 배경인 정가원은 가족 공간보다는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축소판을 나타내고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공간은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모습을 양산해 낸다. 텍스트는 개인의 복수라는 방식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의 구조가 가진 폭력성을 호출하고 있다. 김인숙의 복수는 성공 가도를 향하지만 결국 '주인공의 실종(부재)'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이로써 텍스트는 시청자들이 텔레비전드라마에서 원하는 유토피아적 결말을 지양하고, 그 대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인간적 성숙을 보여준 '조현진'이라는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을 내세우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인숙이 이루려고 했던 '인간의 증명'은 신자유주의 사회 안에서 대외적으로는 성공했을지라도 순수한 인간의 존엄적 가치 차원에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열패밀리>가 의미 있는 이유는 공고한 신자유주의 구조 안에서 '여전히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텔레비전드라마, 재벌, 복수, 모멸감, 신자유주의, 지배 이데올로기, 환대)

1. 서론

물질만능주의가 극에 달한 한국사회에서 '돈'이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수단을 넘어 인간의 가치까지 재단하려 드는 비윤리적인 잣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를 물질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 짓는 이러한 태도는 이제 하나의 통념으로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들은 이 같은 세태를 맹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 또

한 자본의 질서에 편입되기를 강하게 욕망한다. 이와 같은 반응은 다시 현실 사회를 재현하고 있는 텔레비전드라마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돈’ 문제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는 서사는 이미 시청자들에게 일상적인 문법으로 받아들여지며 드라마 속 모든 계층의 인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차용되어져 왔다. 특히, 자본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재벌’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드라마에서는 아예 ‘돈 문제’ 자체가 서사의 중심 내용으로 직접 발화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2011년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로열패밀리>¹⁾는 다른 작품들²⁾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 속 권력과 자본의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재벌을 배경으로 차용하고 있다.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권두현³⁾은 <로열패밀리>가 일본 소설을 원작⁴⁾으로 하고 있는 점을

-
- 1) 권은미 극본, 김도훈 연출, 박상연, 김영현 크리에이터, MBC, 총 18부작, 2011.3.2.~4.28. 염정아·지성·김영애·차예련·전노민·독고영재 등 출연.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매체의 종류를 구분 짓기 위해, 원작 소설을 표기할 때에는 『』를, 영상매체를 표기할 때에는 < >를 사용할 것이다.
 - 2) 2011년도에는 <로열패밀리>를 제외하고도 ‘재벌’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많이 등장한 해였다. <욕망의 불꽃>(2011.3. 중영), <마이더스>(2011.5. 중영), <보스를 지켜라>(2011.9. 중영) 등의 작품들이 잇따라 방영되었다. 그 중에서 <보스를 지켜라>라는 작품만이 부자를 희화화하고 있는 코믹 장르인 것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작품들은 자본의 질서에 입각한 투쟁과 대결이 중심 서사로서 진행되고 있다.
 - 3) 권두현, 『추리의 서사와 인정투쟁의 드라마-미니시리즈 <로열패밀리>에 대한 비교문학적 접근』, 『문학으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 4) 1975년 일본에서 제3회 가도카와 소설상을 받은 모리무라 세이이치(일본 사회파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인간의 증명』(『人間の証明』) 이외에도 『애성의 증명』, 『청춘의 증명』으로 이루어진 <증명 시리즈> 3부작을 출간해 당시 ‘증명 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키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소설은 1977년 영화 <인간의 증명>으로 새롭게 선보였으며, 2004년에는 일본 후지TV에서도 11부작 드라마로 재탄생되어 다시 한 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고려해 이미 비교문학적 측면에서 논의한 바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로열패밀리〉가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재현하며, 불확실성에 포섭된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들에게 일상을 서사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본고 또한 이러한 분석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주인공이 증명하려는 ‘인간’이 극 중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본고의 논의는 〈로열패밀리〉에서 신자유주의 사회에 대응하고 있는 인물 양상들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증명’이 과연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로열패밀리〉속 등장인물들의 배경이 재벌가인 만큼 텍스트는 현실의 신자유주의를 재현하고 있다. 푸코는 『생명 관리 정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통치에 대해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 정치를 포함한 국가의 전반적인 것들이 결정되고 주권이 생산된다고 설명했다. 즉,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발생된 현상들은 대부분 정당성을 부여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이념은 경제적으로 이익과 손실의 최적화 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빈익빈 부익부는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며, 경쟁에 도태되거나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사회는 묵인했다. 〈로열패밀리〉의 김인숙은 바로 이 사회에서 묵인된 사람들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텍스트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질서는 바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이다. 사실 이렇게 빈곤층의 인물이 부유층을 상대로 벌이는 복수극은 대부분 주인공이

5)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사회의 모든 국면에 경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사회를 통치하려고 한다. 즉,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의 경쟁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사토 요시유키, 『신자유주의와 권력』, 김상운 역, 후마니타스, 2014, 31-37쪽.

극 중 세계를 전복 시키거나 본인이 직접 상류 계층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텍스트는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성공'이라는 욕망을 반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시도하고 있다. 바로 주인공 김인숙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의 물질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사회 안에서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해 내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인간의 증명'이라는 명제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지배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므로 본고는 김인숙을 포함한 정가원 안의 인물들이 신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곧 현대 사회가 품고 있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식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텍스트가 사회를 지탱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았다. 우선 2장에서는 로열패밀리 속 정가원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파악한 후,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각자 어떻게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남성중심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회문화 맥락에서 파악하고 복수라는 방식을 통해 권력의 구도가 어떻게 전복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기증명을 위한 '김인숙의 복수가 어떤 측면에서 성공하고 실패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문제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제3의 인물이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 있는지도 고찰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로열패밀리>의 인물들이 동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 이데올로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로열패밀리>의 사회적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양상

2-1. 신자유주의적 욕망을 실천하는 여성들

<로열패밀리>에서 거대 저택인 정가원은 JK그룹의 총수를 포함한 3세대의 대가족이 모여 사는 공간이지만 이제까지 등장했던 대가족의 모습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일단 정가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일반적인 집의 형태와는 달리 사무를 보는 집무실과 주거 공간이 혼재되어 있다. 실제로 화면에 비춰지는 비중도 주거 공간보다는 회사 일을 처리하는 공간들이 더 자주 등장한다. 그러므로 정가원은 분명 가족들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JK그룹이라는 사회 공간과 중첩된다. “집은 거의 생명체, 인간 주체에 특정한 힘을 행사하는 무엇이다. 집은 우리의 창조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지닌 인공기관으로도 간주”⁶⁾되기 때문에 정가원은 로열패밀리들의 정체성을 표상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정가원을 유지하고 있는 원동력은 친밀함을 기반으로 한 가족애가 아닌 실제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영 능력’이다. 즉, JK라는 거대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것’만이 정가원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기제는 가족으로서 배제당한 김인숙에게도 해당될 만큼 강력하게 작동한다.

다음 장면은, 임운서의 친정 기업과 계약을 맺으려던 상대기업을 김인숙이 JK그룹으로 데려와 계약을 체결시키자, 공순호가 모든 가족들 앞에서 그녀를 처음으로 치하하는 장면이다.

6) 레나타 살레츨,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 박광호 역, 후마니타스, 2014, 59쪽.

공여사: 이번에 둘째가 정말... 큰일을 해냈다. (대놓고 칭찬하려고 맘먹은 듯) 기업을 하는 사람은 포기라는게 빨라서 안 된다. 때론 말도 안 되는 일을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법이다.

(중략)

공여사: JK에 이득이 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내 원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인숙 보며)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다. 식구들한테 원망도 많았을 거고.. 이젠.. 넌 내 가족이자, JK며느리야. 애썼다. 둘째야..

(7회)

실제로 공순호가 김인숙을 진심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소외시켰던 그녀를 정식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언행은 그만큼 정가원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정가원은 안락한 가정보다는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의 원리로만 움직여야하는 은폐된 정글과도 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의 축소판을 나타내고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격적인 갈등은 후계자로 생각했던 공순호 둘째 아들이자 김인숙 남편인 조동호 박사가 헬기 추락으로 사망하면서부터 빠르게 전개된다. 이후 며느리를 금치산자로 만들어 모든 재산과 아들 병준이까지 빼앗으려는 공순호의 계획이 드러나며 김인숙은 정가원을 상대로 복수를 결심하고, 가족들의 후계자 싸움에 직접 뛰어든다. 후계자 경쟁에는 첫째 며느리 임윤서와 셋째 며느리 양기정, 막내딸 조현진 그리고 둘째 며느리인 김인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쟁의 주체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실제 한국 여성의 공적 노동참여는 1960년대부터 1997년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국가에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여성들은 가장 먼저 경쟁 체제에서 밀려났었다. 애초에 경제 사회 안에서의 여성은 경제 주체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없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 2000년대

이후 남성 중심 사회가 배경인 드라마에서 여성은 이전보다 사회 경제적 신분상의 계층은 많이 상승한 편이었지만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또한 신분 상승에 있어서 아름다운 여성이미지가 가장 핵심 자본으로 작용했었다. 그래서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주변인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았다.⁸⁾ 간혹 〈마이더스〉⁹⁾와 같은 드라마에서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로열패밀리〉처럼 재벌가를 배경으로 다수의 여성 인물들만이 주축이 되어 경쟁을 이끌어 나가는 서사는 찾아보기 드물다.¹⁰⁾ 이처럼 〈로열패밀리〉 속 여성인물들은 기존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비정형화된 인물 양상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곧 정가원이 일반적인 가정을 묘사하기 위한 공간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반증한다. 첫 번째 특징은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7)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성차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경제위기가 닥칠 때면 남성들의 고통을 강조하면서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재창출하려는 사회적 담론들이 등장했다. 배은경, 『경제 위기와 한국여성』, 『페미니즘 연구』 9-2, 한국여성연구소, 2009, 44-53쪽.

8) 김순기, 홍종배,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언론학연구』 18-2,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4, 18-29쪽.

9) 최완규 극본, 강신호·이창민 연출, SBS 총 21부작, 2011.2.22.-2011.5.3.

10) 덧붙여 설명하자면 최근 정치를 남성의 전유물로 다루었던 TV드라마들이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을 영웅 서사의 전면에서 끌어오기는 해도 사실상 그녀들의 모습은 여성적 리더십도 존재하는 면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남성적 리더십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인물들만이 가진 특유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조수빈, 『현실이 갈구하는 여성 리더십의 판타지』, 『플랫폼』 19호, 인천문화재단, 2010, 30-36쪽.

2000년대에 와서는 30대의 전문직 미혼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는 결국 남성에게 사랑받는 여성을 더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진 여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린, 『트렌드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여성상과 남성상의 캐릭터 서사비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 2010, 104-111쪽.

며 주체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다수의 여성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장소는 '시댁'이다. 모두 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각자 '서로 다른 성씨'를 가진 여성들이 시댁이라는 공간에서 힘의 우열을 가리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시댁은 며느리로서 욕망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공간이다. 그러나 김인숙을 제외한 여성들은 며느리라는 역할과는 별개로 이미 개인의 부와 사회적 명예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안에서 그녀들의 생존 방법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식하고 자유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인 현모양처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지배할 수 있는 사회적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에 더 비중을 둔다. 이러한 정가원의 질서는 시어머니인 공순호 회장에게도 해당된다.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공순호는 정가원에서 가장 웃어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녀가 가족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JK그룹의 총수라는 사회적 위치 때문이다. 자식들은 이러한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한편 다음 정가원의 주인 자리를 욕망한다. 어머니 이전에 그룹 총수라는 지위에 더 본분을 두고 있는 공순호에게 전통적인 모성(母性)의 이미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한국사회에서 모성(母性)은 어떠한 사회적 조건도 뛰어넘고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진다.¹¹⁾ 그러나 공순호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다음 후계자라는 목표물을 던져주며 형제들 간의 팽팽한 경쟁구도를 발생시켜 서로 대결하도록 부추긴다. 그녀에게 좋은 자식의 기준은 '남/녀'라는 성별보다는 기업에 필요한 경영 능력을 갖췄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므로 본 텍스트에서 공순호의 행동은 최고

11) 홍지아, 『TV드라마에 나타난 모성재현의 서사전략과 상징적 경계의 구축』, 『한국방송학보』 23-6, 한국방송학회, 2009, 286쪽.

의 자식을 길러내겠다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첨단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한국 특유 도구적 모성¹²⁾의 일종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아들들과는 달리 막내딸 조현진은 그녀에게 존경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집안이나 사회에서 공석의 후계자를 정할 때, 첫째로는 장남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여성은 아예 제외시키거나, 아들이 없을 때는 사위를 후계자로 승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그러나 막내딸인 조현진은 어릴 적부터 JK그룹의 총수를 목표로 길러진 인물이다. 그래서 공순호 또한 능력만 된다면 언제든지 후계자 자리를 물려줄 수 있다는 의사를 종종 내비치며 그녀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두 번째 특징은 여성 인물들이 애정문제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인숙-한지훈-조윤진의 애매한 삼각관계는 모호하게 묘사될 뿐 정작 그녀들의 행동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첫째와 셋째 부부관계에도 불륜이 빈번하게 벌어지며, 이들의 부부 관계가 철저히 ‘정가원의 주인’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지되고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인물들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지점은 상대적으로 남성 인물들의 사회적 욕망이 소극적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가원의 아들들은 후계자 계승 문제에 대해 수동적이다. 죽은 조동호는 후계자 자리를 거부했었고 나머지 형제들도 더 높은 지위를 욕망하는 모습들이 부재하며, 오히려 아내와 어머니에게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무능한 인물들로 묘사된다. 그래서 극 중 회사와 관련된 중요 사안들은 대부분 여성 인물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남성 인

12) 조은,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페러독스』, 『한국여성학』 26-1, 2010, 81쪽.

물들의 특징은 김인숙을 둘러싸고 있는 엄기도나 한지훈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은 모두 김인숙의 복수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자처한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김인숙의 복수가 성공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로열패밀리> 속 남성들은 매번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소 주체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며 여성인물들의 주체성과 리더십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장면조차 부재하며 오직 '일'로만 교류하는 관계는 '정가원(가족) = JK그룹(사회)'라는 도식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그러므로 정가원을 단순히 내조를 담당하는 여성들의 전유공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정-사회라는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가원에서 남성이나 여성은 기존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지배받지 않는다. 젠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볼 때 여성들이 항상 남성들에 비해 불평등한 관계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 그녀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는 보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본 텍스트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전의 보상체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직접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길 원하고 역으로 남녀 구분 없이 사회적 우위에 올라서기를 욕망한다. 그렇다고 여성 인물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히 여성성을 버리거나 남성성에 의존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 정가원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곧 거대 그룹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다. <로열패밀리>에서 여성은 가정을 넘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즉, 시장원리와 경쟁원리만으로 움직이는 사회 이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로열패밀리>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전복 시켰다고 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 성별의 틀을 허물고 시작하는, 즉 탈 이데올로

13) 배은경, 『경제 위기와 한국여성』, 『페미니즘 연구』 9-2, 한국여성연구소, 2009, 46쪽.

기적인 시점을 가지고 창조적인 텍스트를 시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텍스트는 이제까지 경제적 주체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을 전면에 등장시켜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2-2. 신자유주의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환대와 모멸감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는 그 기초적 구성단위를 ‘기업’이라는 형태에서 찾아내고 마침내 사회체를 ‘기업’이라는 형태로 뒤엎어 버리려고 한다.¹⁴⁾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극단적인 시장원리에 의해 지배 받는다. 덧붙여,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신분 관념이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다. 다만 그 틀이 전근대적인 신분 질서가 아닐 뿐이다. 그 대신 학력, 빈부, 외모, 지위 등이 강력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차이들을 중심으로 귀함과 천함을 구분하고 자기와 타인을 위아래로 자리매김 한다.”¹⁵⁾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는 경제적 조건과 신분 관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계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목부터 계급을 상징하고 있는 〈로열패밀리〉가 재현하고 있는 갈등은 바로 이러한 사회 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공순호는 며느리인 김인숙이 자신이 속한 상류 계층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자체에 모욕감¹⁶⁾을 느낀다. 즉, 가족이라는 형태로 묶여 같은 사회

14) 사토 요시유키, 『신자유주의와 권력』, 김상운 역, 후마니타스, 2014, 47쪽.

15) 김찬호, 『모멸감』, 문학과 지성사, 2014, 126쪽.

16) 모욕에서 파생된 말이 ‘모욕감’인데,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리킨다. 즉, 나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거나 격하될 때 갖게 되는 괴로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찬호, 『모멸감』, 문학과 지성사, 2014, 61쪽.

계층을 공유하고 동일시되는 것 자체에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다. 김인숙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정가원 식구들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김인숙을 지칭할 때 'K'나 천민, 미천한 개, 밑바닥 출신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며 그녀에게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퍼붓는다. 이러한 정가원 사람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비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력으로 구분된 계급사회는 이들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에 대해 어떠한 윤리나 도덕보다 더 앞선 것으로 그 가치와 정당성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사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침해하고 경제성 이외의 가치를 도외시함으로써¹⁷⁾ 서로 '급'이 다른 인간이라는 관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반대로 김인숙은 어릴 적부터 철저히 사회로부터 배척당해 온 인물이다. 길바닥에 버려져 고아로 살아왔던 과거와 재벌가 둘째 며느리로 살아가는 현재는 극과 극처럼 보이지만, 사회 구조가 김인숙이라는 인간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성격은 여전히 동일하다. 그녀는 남편 조동호가 죽기 전부터 정가원이라는 곳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도덕적 공동체-안에서 성원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즉 사람임은 일종의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¹⁸⁾ 그런 의미에서 18년 동안 속칭 'K' 라고 불려온 김인숙의 존재가 정가원에서 얼마

17) 유호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아태연구』 16-1,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09, 133쪽.

18)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31쪽.

나 억압당하고 철저히 약자로 존재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을 인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에 대해 모멸감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을 통해서도 살아 있음을 느낀다. 반대로 자신의 존재감이 사회에서 부정당하고 자존감이 훼손됐을 경우엔 모욕감을 느낀다. 따라서 존재감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도 있다.¹⁹⁾ 그래서 김인숙은 정가원이라는 세계에서 훼손된 자아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인간다움’을 증명받기 위한 ‘인정투쟁’을 벌인다. 그녀는 매번 복수를 다짐할 때마다 ‘인간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되새긴다. 여기서 인간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가원이라는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최적화된 인간이다. 반대로 두 번째는 어떤 사회적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엄적 차원에서의 인간이다. 그러나 김인숙은 정가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간적 차원의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버려진 고아 출신이라는 신분 관념과 경제적으로 하층민에 속하는 경제적 계급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처음부터 신자유주의적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예 경쟁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김인숙이라는 인물이 갖는 특별한 지점은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길 포기하는 아이러니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후계자 경쟁구도에 편입할 수 있는 적합한 인간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반면 복수를 성공시키기 위해 스스로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르는 모순된 양상을 보인다.

19) 김찬호, 『모멸감』, 문학과 지성사, 2014, 62쪽.

인숙: 여기부터... 여기가 내가 인간이길 포기한 지점이야.

(중략)

인숙: ..얼른 취임직장으로 가라구.. 난.. 망설였어.. 그래도 될까? 조니가 다쳤는데.. 근데.. 그때 악마가 나한테 말을 건네는 거야. 그 정도론 사람이 죽지는 않아.. 설마... 기도 아저씨가 어떻게 해줄 거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너 이제서야 사람이라고 취급 받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끝내버리기엔 너무 허무하잖아? 괜찮아, 조니가 괜찮대잖아.. 잇즈 오케이.. 잇즈 오케이 그러자 나.. 나한테 그렇게 속삭여줬어. 난 그 말을 믿고 싶었어.. 그렇게 타협해 버리고 싶었어.

(중략)

인숙: 죽었... 죽었다는 뉴스를 보고서야 나는 그때서야 알았어. 조니가 날 위해.. 죽어줬다는 걸. 내가.. 엄마 아니라.. 악마라는 거. (18회)

그녀는 김마리 시절에 낳았던 아들이 찾아왔지만 외면했다. 결국 자신을 위해 칼에 찔린 아들을 두고 그녀는 취임식을 위해 현장을 떠났다. 본인의 인간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타인(아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외면한 김인숙의 행동은 다시금 스스로에게 모멸감을 자아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정가원 사람들과 다른 점은 김인숙은 최소한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느낀다는 점이다.

복수가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김인숙과 공순호의 수직 형태였던 힘의 구도는 점차 수평 형태로 변화하며 팽팽한 긴장 관계를 구축한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김인숙이 권력을 얻게 되면서 달라진 주변인들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김인숙이 거주하고 있는 별채이다. 본가와 분리되어 있는 별채는 정가원 안의 김인숙을 표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상징 공간이다. 이곳에서 그녀는 지난 18년 동안 감시당하며 본가 밖의 사람(타자)으로 취급당해왔다. 그러나 김인숙은 JK그룹에서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며 권력의 구도를 점차 자

신의 범위 안(별채)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이는 곧 사회에서의 권력이 정가원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평소 대화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첫째 며느리 임윤서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김인숙이 있는 별채에서 무릎까지 꿇는 지경에 이른다. 왜냐하면 임윤서가 친정을 위해 정가원에서 사업 기밀을 도청하고 첩자노릇을 한 사실이 김인숙에게 발각됐기 때문이다. 또한 궁지에 몰린 공순호가 결국 JK그룹의 회장직을 김인숙에게 넘겨주는 순간도 별채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김인숙이 정가원에서 획득한 지위는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는 경쟁의 메커니즘을 통해 임윤서와 공순호 등 정가원 사람들에게 탈취한 것으로부터 얻어낸 성공이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사회적 계급이 낮다고 생각했던 김인숙에게 패배하는 순간 정가원 사람들이 느끼는 굴욕감²⁰⁾은 같은 계급과의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보다도 훨씬 충격이 크다.

김인숙이 JK그룹을 지배하는 순간, 정가원 안의 권력도 본가에서 그녀의 별채로 완벽하게 이전된다. 이로써 외면당하고 소외의 공간이었던 별채는 권력의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그러므로 김인숙은 정가원을 넘어 JK그룹 회장으로서도 모든 이들에게 환대받는 인물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환대는 절대적 환대로 볼 수 없는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반된 환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의 지위가 다시 하락한다면 이 환대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 이처럼 <로열패밀리>는 사회 전체를 경쟁의 원리로 채우려는 통념 안에서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는 사회 구조가 가진 폭력성을 낱알이 드러낸다.

20)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각자의 상품성을 최대화하려는 압박을 받으며 끊임없는 굴욕과 강등의 위협에 시달린다. 그러므로 '굴욕'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지배적인 모욕의 형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일 것이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158-159쪽.

3. <로열패밀리>를 통해 바라본 신자유주의적 인간

3-1. '인간 증명'의 성공과 실패 양상

자신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시킨 정가원을 향한 투쟁²¹⁾(복수)은 김인숙이 JK그룹 회장직을 차지하며 완성된다. 이로써 그녀는 강력한 권력을 지닌 존재로서 가족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다. 물론 정가원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질서에 도로 역공을 당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김인숙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사회 밑바닥 계층이라는 생득적 요소와 상류 계층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몸소 경험하며 얻은 획득적 요소는 김인숙의 복수와 성공에 개연성을 만들어주며 텍스트는 사회 이데올로기가 지닌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인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그러나 <로열패밀리>는 단순히 김인숙의 성공이라는 해피엔딩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회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방 출장을 갔던 김인숙은 한지훈과 함께 헬기를 타고 오다 실종된다. 이 둘의 실종이 공순호가 사주한 킬러에 의한 것인지, 한지훈과 함께 세계일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떠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 공순호는 병들어 죽어가고, 공석이 되어버린 JK그룹 회장 자리에는 조현진이 거론되며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실종 사건은 복선을 통해 간접적인 암시만 있을 뿐²²⁾ 철저히 시청자 상

21) 헤겔은 투쟁이라는 개념에 대해 인격을 훼손당한 주체가 방어의 행위를 통해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범죄의 '반작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약셀 호네프,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 책, 2014, 62쪽.

22) 이 장면은 <로열패밀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지훈과 김인숙이 탑승한 헬기가 석양의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장면은 조동호 박사가 추락사고가 나기

상의 뭉이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는 전체를 상징하는 결말과 김인숙 개인의 결말을 구별해서 해석해야 한다. 우선 김인숙의 복수가 상징하는 성공과 실패의 지점들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녀는 정가원의 체제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 윤리/도덕적 인정관계를 버리고 냉혹한 경쟁의 질서를 선택했다. 그러므로 김인숙의 복수는 정가원의 질서 안에서 성공했을지라도, 반대로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인숙: 병준이까지 버리면.. 난.. 정말로 사람 아닌 게 돼.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한다고.. 내가 스스로 사람이길 포기할 순 없어. 50억.. 왜 싫다고 했는 줄 알아?

지훈:?

인숙: 그제.. 조롱 값이기 때문이야. 그 돈으로 자식 파는 거.. 구경해 보자는 조롱 값.. 그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야. 50억에 자식 버린 엄마라는 걸, 병준이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가 사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라구. 이 상황에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병준이한테.. 나 자신한테... 내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야. (2화)

앵커: 둘째 며느리인 김인숙씨를 그룹 회장으로 내세운 것은, 그간 김인숙씨가 봉사활동을 통해 쌓아온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미지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숙: (이를 들으며, 혼잣말로) 김인숙 회장.. 김인숙 회장... 이거였어.. 이거하고 바꾼 거야.. 조니를.. 이거였어.. (18화)

직전 헬기를 타고나가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며 극의 수미상관 구조를 이룬다. 본 텍스트에서 '하늘'은 특별한 공간이다. 조동호나 한지훈은 하늘을 동경했기 때문에 비행사 자격증을 땀었고, 김인숙은 항상 심신으로 지칠 때면 별채 기도실을 찾아가 신에게 기도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하늘'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도피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위의 장면 대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맨 처음 김인숙은 아들 병준에게 자본의 권력에 굴복당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리고 정가원 사람들과 자신이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들의 질서에 편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인숙은 또 다른 친아들 조니의 죽음을 외면하는 반인륜적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한마디로 김인숙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정가원의 방식을 혐오했지만 그들에게 되갚아줄 복수의 수단으로 똑같은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지만 친아들의 죽음을 외면한 김인숙의 대응은 다시 한 번 정가원의 방식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김인숙은 자신의 목표였던 회장 취임 뉴스를 보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민주주의와 계급타협의 물질적 기초를 붕괴할 우려²³⁾가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 중심의 사회 구조는 힘없고 약한 개인에게 매우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세계나 극 중 세계 모두 그 사회를 지탱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로열패밀리>에서 최종적으로 JK그룹 회장 직에 취임하는 사람은 조현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을 두고 단순히 공순호가 회장이었던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반복하며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조현진은 분명 로열패밀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인 공순호와와는 변별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텍스트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잘못된 사회 통념이 보여주는 현상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

23) 이영조, 『신자유주의시대의 민주자본주의』, 『사회과학연구논총』 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1988, 270쪽.

하고 있다. 그것은 ‘아무리 자본과 권력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결국 다 같이 공존하는 사회 안에서는 머무를 수 없다’라는 법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로열패밀리> 속 인물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 우선 18년 동안 김인숙의 인간적 존엄성을 무시하고 억압했던 공순호도,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천륜을 저버린 김인숙도, 모두 JK그룹 회장이라는 최상류층에 도달할 수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 자리를 지속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맥락은 장남 조동진이 아닌 막내딸 조현진이 그룹 회장으로 선택된 이유도 설명해 줄 수 있다. 조현진은 분명 신자유주의 질서에 물들어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기도 집사를 죽인 첫째오빠와 달리 그녀는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적 계급에 의한 갈등은 이미 현실 세계나 텔레비전 드라마 안에서조차 일상적인 문법처럼 존재해 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제적 계급은 당연한 결과물의 하나지만, 이러한 계급적 분화는 다시금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본 텍스트는 이러한 사회 통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이전 작품들과는 다른 층위에서의 접근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경제지배 구조에 의해 훼손당하는 인간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인식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원론적인 의문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리고 김인숙의 복수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녀가 복수 할 때마다 ‘인간의 증명’이라는 대사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론은 텍스트에서 찾고자 하는 정답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사는 복수의 성공 여부 보다는 복수라는 행위를 발생시키고 있

는 배경에 더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덧붙여 거대 재벌 그룹의 주인이 세 번씩이나 바뀌는 설정 또한 계층 간의 구조가 매우 공고할 지라도 그 체계를 유지하는 주체들은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 발전이란 결국 사회적 인정에서 배제된 사람들, 즉 사회적으로 무시 받는 사람들도 사회적 인정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적 자아실현의 조건을 보장하는데 있기 때문이다.”²⁴⁾ 김인숙의 경우도 애초에 정가원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화해나 용서를 동반한 인정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경영능력이 드러나면서 가족과 사회는 차츰 그녀를 JK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김인숙을 대하는 행동이나 호칭, 말투를 통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김인숙을 무시하고 모욕하기 위해 지칭했던 K라는 호칭이 그녀를 정가원이라는 세계에서 철저히 소외시키고 낙인찍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반대로 동서나, 올케, 둘째 며느리, JK클럽 사장, 회장님 등으로 바뀐 호칭 안에는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그녀를 자신에게 보탬이 되는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인정개념도 역시 사회 구조 차원 안에서의 인정이지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정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 그러나 상호적 인정관계로 인해 구조 안의 주체들이 변화하는 현상은 결국 인간이 인간을 인정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와 긍정적인 미래를 수반할 수 있는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로열패밀리>라는 제목은 단순히 정가원의 사람들만을 지칭하기 보다는 진정한 로열패밀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 조건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주지시켜주는 다소 이중적인 목적성을 갖고 있는

24) 문성훈, 『인정의 시대』, 사월의 책, 2014, 307쪽.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3-2. 진정한 신자유주의적 인간의 실천과 의미

〈로열패밀리〉는 역경을 이겨낸 주인공의 해피엔딩이라는 결론을 지양하고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유토피아적 환상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여 현실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 대신 공순호에 의해 후계자로 지목된 조현진이 어머니와 올케의 부재를 타개하고 그룹 회장으로서 급부상하며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응책으로 제시된다. 서사 전반에 걸쳐 유일하게 인격적 성장을 보여준 그녀 또한 처음에는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김인숙을 K라고 지칭했었다. 그러나 김인숙을 가족으로 인정한 후에는 오히려 올케를 배척하려 드는 가족들의 행동에 반기를 들며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애쓴다. K가 아닌 둘째 올케로 바꿔 부르는 행동은 일종의 정가원이 가지고 있던 원칙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의 첫걸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대로 김인숙과 한지훈의 입장에서 조현진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로열패밀리였기 때문에 이들 역시 그녀를 어떤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도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물론 그녀가 김인숙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전까지 지켜온 기득권 특유의 선민의식을 버린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녀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로열패밀리라는 의식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그녀는 ‘과연 진정한 로열패밀리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 다음 대사는 조현진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조현진: (중략) 하지만... 안되더라도.. 야비한 방법은 쓰지 않을 거예요. 엄마.. 이제부터 돈의 양만큼 돈의 (강조)근원도 중요해요. JK이미지.. 이런 일로 구겨지면 안 되잖아요? 속이야 어찌됐건.. JK의 존엄은 지키고 싶어

요. 그게 제가 같길 같구요. (7회)

조현진: (중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 로열패밀리를 자처하는 니들이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통쾌하게 웃는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살인에 명분이 따로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 쓰레기들의 살인? 로열들의 살인? 뭐가 다르냐고요! 절대 그 방법만은 안돼요. 엄마! 로열패밀리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도 달라야 해요. 그 방법만은 용납 못하겠어요. 엄마가 저한테 정말 물려주셔야 할 건 조 단위의 JK가 아니라 로열패밀리의 진정한 자부심이에요. 그게 저한테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다고요. (18회)

위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현진에게 경제적 계급의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JK그룹의 사회적 가치는 곧 자신의 존엄적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정가원 가족들과는 변별되는 인물이다. 정가원 가족들이 특권계층의 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했다면 조현진은 아무리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절대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로열패밀리라는 것을 자각하고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품위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즉,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돈이나 권력보다 계급에 걸맞는 의식수준과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 앞에서는 그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도 똑같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조현진의 이러한 신념은 그 어떤 물질적 유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경제적 계급은 존재할지라도 순수한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는 불평등한 계급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같은 사회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불공평한 경쟁체제로 인해 경제논리가 인권을 넘어서고 있는 문제적 현상과 일치한다. 신자유주의가 가장 강력하

게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는 실제 보편적인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인격’을 가진 개인이 아닌 시장경제의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재산’을 가진 개인에 국한 된다는 역설적 측면을 보여준다.²⁵⁾ 이러한 불공평한 체계는 결국 사회의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로 변질된다. 그러므로 조현진은 경쟁의 메커니즘 안에서 오직 성과주의만 부추기는 정가원의 질서가 문제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그녀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 유일하게 각성한 인물로 재탄생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현진은 공순호 회장과는 다르다. 우선 그녀는 자신보다 미천하다고 생각했던 김인숙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패배감을 경험한다. 첫 번째는 공순호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번번이 김인숙의 계획에 휘말려 리더가 아닌 부차적인 주변인의 역할로써 올케를 수행하는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나 조현진은 김인숙의 인간적인 경영 방식을 지켜보며 때때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두 번째는 조현진이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얽매이는 인물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호감을 느꼈던 한지훈 변호사조차 김인숙에게 빼앗기는 처지가 된다. 물론 올케를 연적으로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오직 김인숙만 바라보는 한지훈의 존재는 다시금 조현진에게 감정적 패배감을 안겨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김인숙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그녀를 억압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김인숙과 협력하며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 이 모든 과정들은 조현진을 한층 더 의식적으로 성장한 로열패밀리로 만들어 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현실 세계가 표방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신자유주의

25)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이후, 2010, 8쪽.

형 인간을 가장 잘 형상화 할 수 있는 최적화 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공평한 지배구조 안에서 의식적으로 성장한 로열패밀리의 각성은 곧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기업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위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기본적으로 거대 그룹(기업)은 신자유주의 수사(修辭)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시장이나 국가 정책에 종속되지 않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²⁶⁾ 이러한 조현진의 변화는 반대로 가정하면 하나의 거대 기업이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현진의 등장은 공순호의 반복이 아닌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변수로 작용하며 인간 존엄성의 가치 회복이라는 숙제를 지닌 신자유주의에 필요한 대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텍스트는 복수를 감행하는 주인공 이외에도 새롭게 변화한 제3의 로열패밀리라는 양극단의 인물들을 끌어들이며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쪽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서사를 이끌어 온 주인공들이 결론 부분에 부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진으로 인해 본 텍스트가 자아내는 정서는 결코 절망적이거나 과장된 비극성을 내비치지 않는다. 결국 <로열패밀리>는 김인숙 개인의 복수나 재벌 총수의 후계자라는 결과만으로 완성되는 서사라기보다는 다양한 층위의 인간들을 재현하며 '더 나아진 미래'라는 가능성을 품은 서사에 더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논의하자면, 기업의 총수가 자주 바뀔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가 공순호-김인숙-조현진과 같은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그녀들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모성애적인 감성을 잘 활용하여 기업의 성공을 이끌어낸다. 또한 김인숙과 조현진이 경쟁

26) 콜린 크라우치,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유강은 역, 책읽는수요일, 2012, 83쪽.

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한 사람만이 승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법칙을 텍스트는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결국 텍스트는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는 서사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대안을 주도하는 인물로 여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여성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4. 결론

사회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들로 형성된다. 그 중에도 현실을 지배하는 사회 이데올로기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접근될 수 있다. 특히 예술의 경우, 사회의 이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점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로열패밀리〉에 형상화된 현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의 시선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드라마적 성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본고는 이 문제에 집중하여 텔레비전 드라마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로열패밀리〉는 신자유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재벌/복수라는 낯익은 제재를 가지고 시청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재벌을 상대로 벌이는 복수극의 초점은 물질적인 측면이 아닌 ‘인간의 증명’이라는 정신적, 존재론적 측면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녀의 복수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자유주의 사회 구조 안에서의 성공이지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하는 차원에서는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녀의 복수가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질서에 의한 경제적 계급 속에서도 인간의 가치는 절대 훼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아

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작가의 대응책으로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가 바로 조현진이라는 인물이다. 조현진은 물질(자본)에 우선하는 '인간의 가치'를 깊이 각성한 대안 인물형으로서 그에 의해 인간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로열패밀리>는 이제까지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온 현실을 폭로하며 자본을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텍스트는 다양한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서사를 전개하고 있지만 그 갈등의 초점은 개인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 구조라는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갈등의 리얼리티를 위해 극 중 세계의 모순을 급하게 봉합해 버리는 해피 엔딩 결말을 의도적으로 지양하고 유토피아적인 지점들을 경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극을 통해 현실을 공감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현재적 의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권음미 극본, 김도훈 연출, MBC 드라마 〈로열패밀리〉 영상물 총18회, 2011.3.2.~2011.4.28.

2. 논문 및 비평

김순기·홍종배,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언론학 연구』 18-2,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4, 22-25쪽.

배은경, 「경제 위기와 한국여성」, 『페미니즘 연구』 9-2, 한국여성연구소, 2009, 39-82쪽.

유호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아태연구』 16-1,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회, 2009, 123-140쪽.

우 린, 「트렌디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여성상과 남성상의 캐릭터 서사비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 2010, 104-111쪽.

이영조, 「신자유주의시대의 민주자본주의」, 『사회과학연구논총』 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1988, 263-281쪽.

조수빈, 「현실이 갈구하는 여성 리더십의 판타지」, 『플랫폼』 19호, 인천문화재단, 2010, 30-36쪽.

조 은,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페러독스」, 『한국여성학』 26-1, 한국여성학회, 2010, 69-95쪽.

홍지아, 「TV드라마에 나타난 모성재현의 서사전략과 상징적 경계의 구축」, 『한국방송학보』 23-6, 한국방송학회, 2009, 284-323쪽.

3. 단행본

김찬호, 『모멸감』, 문학과 지성사, 2014.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이후, 2010.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문학으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문성훈, 『인정의 시대』, 사월의 책, 2014.

레나타 살레츨,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 박광호 역, 후마니타스, 2014.

사토 요시유키, 『신자유주의와 권력』, 김상운 역, 후마니타스, 2014.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 책, 2014.

콜린 크라우치,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유강은 역, 책읽는수요일,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Response to the Dominating Ideology in the TV Drama 〈Royal Family〉

Cho, Eun-Jung(Hanyang University)

TV drama 〈Royal Family〉 arouses the viewer's interest with the familiar material of conglomerate/venge. when we see the hidden side, it resists the customs that we believe as a universal value and gives us a chance to reconsider the dominating ideology which works only by the neoliberalism order.

〈Royal Family〉 is a story on the basis of the revenge of a daughter-in-law on her mother-in-law, who owns a large company, for 18 years of suppression. Unlike other family dramas, women characters such as competent daughters and daughter-in-laws play important roles. They represent the women character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s and become the subject of desire. Junggawon, the background of the drama, can be interpreted as a projection of the neoliberalism society rather than family space. And this space produces the image of the men who feel humiliated. The conflict based on the ruling order which was considered as a common fact broadens conflict of an individual to the public sphere and calls the matters of society. At first, the revenge of Kim In-sook is on the fast track, but eventually it ends with the event of 'the missing(absence) of the heroine.' An open text like this gets rid of the utopian fantasy which most of the viewers want from TV dramas. It suggests the new chance through the character 'Cho Hyun-jin', who grows up throughout the drama. Although 〈Royal Family〉 directly calls the matter of the 'dignity of man' using nonperson, the heroine represents the way of the capitalism order in an attempt to succeed in her revenge.

The 'proof of man' that Kim In-sook wanted to achieve might succeed externally, but could fail in terms of the proof of the dignity of man. Nonetheless, The revenge is meaningful because it suggest the fact that 'the dignity of man cannot be destroyed' even in the deep-seated neoliberalism.

296 대중서사연구 제22권 2호

(Key Words: TV drama, conglomerate, convention, revenge, disdain, neoliberalism,
dominating ideology, hospitality)

논문투고일 : 2016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5월 4일

수정완료일 : 2016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6년 5월 14일